



십시일반 사랑 나누는 '기부천사'

이들이 있어 푸드마켓은 행복하다

'밥 열 숟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인 '십시일반(十匙一飯)',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인 이 고사성어를 실천하며 작은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기부물품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자들이나 소액 기부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기업이나 식료품 생산공장들이 많지 않은 지역 여건상 기부물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김치 공장인 '김치원'을 운영하는 강연희(43)씨는 "형편이 어려웠을 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이제는 조금씩 받았던 도움들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채소류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제주종합식품 최경부(58) 대표는 "기부는 특별한 사람이 하거나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마켓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기부자는 축산마트 강정홍 대표, (주)금강축산유통 정대진 관리이사, 제주종합식품 최경부 대표. (왼쪽부터)

IMF 외환위기 시절 사업체의 부도로 실의에 빠져 있다 재기에 성공한 산방미곡 오영봉(49)대표는 매달 푸드마켓에 쌀을 기부하고 있다. 제주시 내도동에서 쌀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 대표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기분 좋은 축산마트'를 운영하는 강정홍(42)씨는 "푸드마켓 개점 소식을 접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고

힘들었을 때 받았던 도움을 돌려 주자라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나마 돼지고기를 기부하고 있다"며 "기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많은 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주)금강축산유통 안성(48) 대표는 맨손으로 제주에 정착한 뒤 사업을 하며 받은 주위의 도움을 다시 제주에 환원하기 위해 푸드마켓에 주 1회 돼지고기를 기부하고 있다. 금

강축산유통 정대진(45) 관리이사는 "직원 모두 매주 월요일은 푸드마켓 기부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원들 스스로 다른 어려운 곳을 찾아 기부와 나눔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많은 소액 기부자들과 중소기업자들이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0년 새해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나누는 사랑나눔 릴레이를 통해 제주도민 모두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제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3일 개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여성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진>을 오는 13일 개관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05년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7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사업비 153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대지 8330㎡에 건축면적 732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됐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강의실과 열람실, 영유아 보육실, 의상제작실, 조리실, 여성역사문화전시관, 기획전시실, 400석 규모의 공연장 등을 갖췄다.

상설전시관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제1전시관(신화관), 제2전시관(역사관), 제3전시관(생활관)으로 구성됐다. 신화관에서는 제주를 창조한 여신인 설문대할망, 자청비(세경할망), 조왕할망, 감은장아기, 벽랑국 세공주 등을 통해 신화 속에 빛나는 문화영웅으로서의 여성 신화를 소개한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올해부터 간병서비스제도화
시설 탐방-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제주동중 장애체육 · 소식마당
2009 장애인문화예술제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기고
- 특집 7면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경인년(庚寅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신년인사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9년 1월 7일(목) 11:00 ~ 12:00

장소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내용 - 유공자 시상 / - 참가자 교례 / - 오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시 화북1동 1112-1 / www.jejubokji.net
Tel. 064-702-3783~4 Fax. 064-702-3383

간병서비스제도화...내년엔 건보혜택

복지부, 환자부담 줄고 일자리창출 기대

올해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포함돼 공식서비스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4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민·고용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간병서비스를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의 간병수요가 커서 이런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환자부담은 줄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유료간병을 이용하는 환자는 월 평균 20.3일 동안

81만2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87.2%가 간병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을 간병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1768억원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현행 28만명에서 38만명으로 10만명 늘리면서 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간병제도화 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의 자립에 기여하는 자산형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 시범사업을 2만가구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일을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할 경우엔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는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33만명에 대해서는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를 75곳에서 100곳으로, CYS-넷은 97곳에서 166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퇴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가입을 유인하고, 연령에 따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케어)'가정에 현금보상도 추진되며,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산정할 때 낮은 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에 합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장애인·주민 위한 복합문화공간 탄생

서귀포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생겼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복지관 1층에 장애·비장애아동을 위한 실내놀이터 '아이마루' <사진>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 휘트니스를 12월 8일 개장했다.

아이마루는 장애·비장애아동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놀이·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복지관은 비장애아동도 이용가능한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전면 거울이 부착된 복합 휘트니스룸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영화상영, 문화공연, 댄스교실, 요가교실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연중 운영된다.

복지관 외부에는 야외골프장이 조성됐다. 현재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골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 단위로 접수를 받아 쉽게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의=732-2352~4.



“노블레스자원봉사 인센티브 개발 필요”

제주도자원봉사 정기포럼서 강세현교수 주장

노블레스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월 2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09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 정기포럼' <사진>에서 제주한라대학 강세현 교수는 '노블레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장려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일정 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블레스의 업체나 사업장, 업소 앞에 붙일 수 있는 모범업소 명패나 배지 등 장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노블레스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블레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노블레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 노블레스에 대한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노블레스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노블레스의 대상과 범위 확대 ▲노블레스 참여자 확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투명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2009년 후원자 명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수(1.5ℓ) 1만4000개, 감귤주스(150ml) 1만4000개 ▲제주은행=생필품류 17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3430kg ▲풍인건설=라면 2000개 ▲기분좋은축산마트=육류 130kg ▲산방미곡=쌀 946kg ▲제주종합식품=채소류 2314kg ▲명도완관광휴양목장=유기농채소류 93kg, 반찬류 5kg ▲서문식품=두부 960모 ▲제주특별자치도슈퍼마켓협동조합=사과 10상자 ▲제주이어도자활센터=단감 3상자, 채소류 100kg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김치 216kg ▲김치원=김치 122kg ▲제주시청=생필품류 474개, 쌀 734kg, 500만원 ▲제주마삼=식재료류(23종) 1136개 ▲제주도보육시설연합회=쌀 1200kg ▲푸른제주영농조합법인=감자 50상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빵 3상자 ▲한아름정육마트=육류 74kg ▲김만덕 기념사업회=쌀 6000kg ▲서귀포시농협=쌀 400kg ▲한라라이온스클럽=쌀 120kg ▲영락교회=쌀 2000kg ▲제주MBC=쌀 100kg ▲정우식품=비누 6510상자 ▲제주특별자치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쌀 60kg, 라면 7상자 ▲제주시협=라면 20상자 ▲제주대학 최고경영자과정 15기 동창

회=라면 23상자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동아리 한꿈레오=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20만원 ▲농협중앙회 제주도청지점=42만원 ▲국수마당=30만원 ▲KT제주마케팅단=200만원 ▲제주은행 시청점=20만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1000만원 ▲동광성당 빈첸시오=2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30만원 ▲E도시가스=60만원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27만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복지청소년과=523만원 ▲제주나누리라이온스클럽=100만원 ▲임문범(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200만원 ▲고용범=쌀 10.5kg, 김 6상자, 검은콩두유 2상자 ▲강수남=쌀 300kg ▲현민철=500kg, 신라면 8상자, 초코파이 7상자 ▲김창섭=쌀 200kg, 감귤주스 1상자 ▲이명구=쌀 1000kg ▲김정수=채소류 10kg ▲홍원우=채소류

20kg ▲김금순=양파 20kg ▲CMS후원자=강길호 강승향 강욱자 강윤자 강정자 강창인 강태훈 강효정 고경윤 고명희 고승희 고은정 고춘매 고치환 고현수 고호준 김남근 김남길 김대영 김동환 김미경 김미자 김미향 김복철 김분희 김선자 김성건 김수정 김양자 김옥순 김은진 김재홍 김정호 김종완 김지경 김 현 김현아 김효심 나명숙 문경립 문시병 문영섭 문익순 문재원 박강란 박강엽 박광숙 박천광 안성희 양석훈 양순희 양애자 양진희 양홍석 오만순 오승의 오승진 오애순 오양선 오은숙 오창석 원성훈 유봉순 윤경숙 윤순덕 윤영아 윤정숙 이동한 이시찬 이영진 이은숙 이정숙 이태영 이현정 임부훈 임애춘 임양자 장은숙 장화자 정금옥 정명효 정지현 정혜진 조길화 조명숙 조정희 조현경 천갑순 최막동 최호만 한미숙 한영희 한옥녀 한윤향 함복희 허경미 허미화 허연정 허은영 현미화 홍나나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950,000	95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500,000	500,000
복지사업후원	1,420,000	452,620
푸드마켓후원	6,345,000	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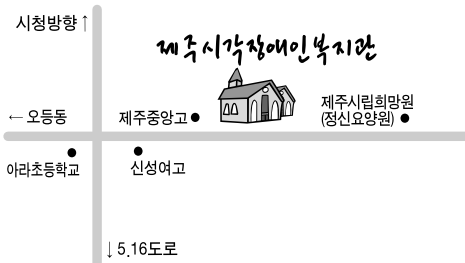
(26)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자립 · 재활 산실

“일할 수 있는 사회적시스템 부재 안타까워...직업모델 개발 주력”

2003년 10월 제주시 월평동에 자리잡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 한해의 마지막에 선 12월 오후, 2초에 한 번씩 ‘딩동’ 하고 울려대는 유도벨 소리를 들으며 복지관 현관을 들어서는데 멋스럽게 단장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한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50년 서울맹아학교학생들이 제주로 피난 오면서 제주맹인역사가 시작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지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설립됐다. 복지관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몇몇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들고 점자블럭과 유도블럭을 따라 화장실을 직접 찾아가고 프로그램실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역거점 복지센터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기 위해 장애인스포츠 및 문화활동 확대, 정보접근성 강화, 재가복지, 사회심리재활, 의료재활, 전역출판, 보행교육, 점자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복지관 내에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해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기능 활용법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한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09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에서 양동주(시각장애 1급)씨가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사회복지정보 및 복지관 프로그램,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리샘 전화사서함(1577-6655)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2층에 마련된 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장애인동 및 지역주민을 위해 점자도서, 녹음도서, 전자도서, 일반도서 등을 구비해 놓고 도서대출, 열람, 시각장애인 의뢰도서제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안마사 양성호(시각장애 1급)씨는 “시간이 날 때 마다 안마 관련 책들을 빌려 집에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복지관에서는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방문, 기초적인 건강 체크 및 혈압, 혈당검사와 같은 의료서비스와 지역 후원업체에서 지원한 후원물품으로 생활용품 및 주방용품등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 주변 방역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관련 우수선수를 발굴·육성, 해마다 열리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양예홍(시각장애 1급) 관장은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아직 시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고 안타까워하며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모델을 개발해 시각장애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고 있는 장애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훈훈한 마음을 전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정선 명예기자〉

제주도 올해 사회복지예산 4676억

전체예산 16.86%...전년비 294억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4676억원으로, 전체예산 2조7735억원의 16.86%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회복지예산 4382억원보다 294억원(6.7%) 늘어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는 전년에 비해 112억원 증가한 1334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을 추가로 발굴해 기초생활급여가 48억원 늘었고, 이에 따른 의료급여 사업비도 5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지원분야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사업비 등 70억원이 증가해 496억원이 투자되며, 보육 및 가족·여성분야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32억원과 이달 새롭

게 문을 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25억원 등 119억원이 증가한 1376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노인·청소년분야에는 전년보다 51억원 감소한 959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를 1~3등급까지 적용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입소자격을 1~2등급까지만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3등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부터 3등급까지 확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노동분야 88억원 ▲보훈분야 23억원 ▲사회복지일반분야 85억원 ▲보건위생분야 280억원 등이 투자된다.

도, 장애친화시설 음식점 5곳 인증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수 음식점 5곳을 선정, 무장애시설 인증패와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이번 무장애시설 인증은 건축관련 교수와 장애인 당사자, 건축사, 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요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근린생활시설 21곳에 대해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풍전(대표 유영매·제주시 연동), 여미회관(대표 박평일·제주시 연동), 제주한국관(대표 장성삼·제주시 삼도2동), 한국회관(대표 장춘길·제주시 한림

읍), 새섬갈비(대표 한우림·서귀포시 서귀동)이 장애친화시설로 인증받았다.

제주도는 무장애시설 인증제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주관하는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장애 인증 시설평가는 의무시설 60% 이상, 권장시설 60% 이상 수준을 기준으로 지표가 마련됐으며, 인증 기준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최우수센터’ 선정

장관 표창·상금 300만원 수상

서귀포시는 전국 232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관리, 우수프로그램, 특수시책 등 4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은영)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가 2009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로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귀포시’란 비전으로 다양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

업’에 서귀포시 건축기술지원봉사회 등 5개 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3600만원을 들여 2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 42가족 150여명이 참여한 ‘가족자원봉사단’은 매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장애체험과 안전체험학습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자녀교육 등에서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과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제공했으며, 도움이 절실한 틈새계층에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단’ 운영 등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눈을 감고 걸으면 어떤 느낌일까?

제주동중학교 장애체험활동

“눈을 감고 걸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동중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12월 19일 학생문화원에서 제주동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활동 시간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체험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과 체험도구 사용방법 등을 강사로부터 들은 뒤 시각장애 체험, 지체장애 체험, 노인체험 등에 참여했다.

시각장애 체험에 나선 학생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흰지팡이를 이용해 계단을 오르고 내리거나, 평지에서 걷기 등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

애인의 불편함을 몸소 경험했다. 고준혁 학생은 “오직 흰지팡이를 통해서만 들리는 소리와 흰지팡이만 의지하고 걸어간다는 것이 두려웠고, 넘어질까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는 것과 건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지체장애 체험 중에서는 두 팔이 불편해 발 또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는 대신 펜을 입에 물고 ‘엄마 사랑해요’ 등 하얀 도화지에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썼다. 구족화가 체험을 한 한 학생은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더군다나 그림을 그렇게 멋지게 그릴 수 있다니 장애인 화가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노인체험을 한 학생은 “제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자주 몸



△제주동중학교 학생들이 구족화가체험(왼쪽)과 노인체험을 하고 있다.

이 무겁다 고 하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번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보니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라며 “그동안 장애인들을 돕지 않고 무관심했던 점을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라고 했다.

제주동중학교 관계자는 “학생은 물론 나도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양보와 배려가 몸에 배인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드림 환경 어린이기자단 환경수기공모전 입상

해바라기지역 아동센터(시설장 박미란)가 발족시킨 ‘드림 환경 어린이기자단’이 제주지역기술개발센터가 주최한 환경수기공모전에서 단체부문 지역 환경 기술 개발 센터 연합회 장상을 수상했다. 기사단 소속 한수우(세화초 5년) 어린이는 학생 부문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장상을 수상했다.

드림 환경 어린이기자단은 제주 자연의 특성을 알기 위해 꽃자왈과 오름, 바다를 중심으로 제주 지형의 특성을 직접 보고 배운 뒤 지방일간지에 기사를 쓰며 홍보를 하고 있다.



해정원 아가의집 문화축제

해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12월 20일 아가의집 다목적실에서 문화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2009년 한해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난타발표회와 댄스, 수화공연, 연극, 판도마임, 합창,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생활인들의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노인일자리사업 간담회 개최

제주도노인복지회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은 12월 8일 제주시 연동 모음식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간담회를 열어 참가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학교급식도우미 및 장애인돌보미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소/식/마/당

중증장애인에 김장김치 전달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태현)과 덕산사 연꽃사랑회(회장 김정실)는 12월 13일 직접 담근 김장김치 36상자(5kg 들이)를 지역 내에서 자립 생활을 실천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덕산사는 2006년부터 후원결연을 맺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화북초 순복음복지관 업무협약 체결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재호)는 지역사회 이동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2월 1일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후원물품 지원 등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공생 사랑의김장담그기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이사장 전내영) 산하 제주정신요양원, 제주시립희망원(원장 박정해), 희망나눔상담센터(센터장 김성자)는 12월 1~3일 제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문정복)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제주공생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3일간 정성을 가득 담아 김장 2000포기를 담갔다.

감귤수확 자원봉사활동 전개



제주다문화가정센터 다문화사진자원봉사단은 12월 20일 일손이 부족해 감귤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대천동 다문화가정 농가를 찾아 감귤 따기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2월 13일에는 요양원을 방문, 문예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등 다문화가정센터 봉사단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과 행복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집, 송년의 밤 행사



성심원 사랑의집(원장 김호성)은 자원봉사자, 자모회, 결연가족 등과 함께 12월 3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인과 교사가 ‘태권무’를 선보이고, 생활인들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또 서예교실과 원예치료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사업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제2회 가톨릭합창페스티벌 참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톨릭 합창단이 12월 13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2회 가톨릭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해 ‘희망의 속삭임’과 ‘로사리오 기도드림 때’를 선보이며 당당하게 기량을 뽐냈다.

가톨릭 합창단은 12월 24일 열린 사랑하는 사람들 발표회 및 황사평 성탄예수제에서도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하모니를 연출했다.

2009 장애인문화예술제 '성황'

연극·풍물놀이 등 공연 다채... '정기적 지원·관심 절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주최, 제주장애인아간 학교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12월 11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2009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성황을 이뤘다.

'새로운 문화 창조자!'를 주제로 제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문예교실회원, 가족,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기량을 선보였다.

최희순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의 문화권이 보장됐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은 관람에만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의 주체적 생산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편영화 '의미 있는 선물'로 막을 올린 이날 예술제에서는 연극교실 '나눔'의 '늙은 어린왕자', 밴드 '허당보난'의 공연, 노래교실 '머리카락'의 노래 공연, 풍물교실 '큰울림'의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으나 공연이 계속되면서 소극장은 관객과 배우들의 열기로 인해 금세 달아올랐으며, 대사를 잠시 잊은 출연자에게는 또



△ '새로운 문화 창조자!'를 주제로 12월 11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2009 장애인 문화예술제.

거운 격려의 박수로 힘을 보탰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은호 사무국장은 "장애인들도 문화생활에 목마른 상태"라며 "장애인 문화의 자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올 여름 탐동해변 공연장에서 장애인 문화공연을 열 계획이다.

〈이명자 명예기자〉

경찰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12월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서귀포시 관할 중동지구대와 남원파출소 경찰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절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129)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졌고, 아동지킴이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이에 앞서 12월 4일에는 서귀포경찰서 주최로 진행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발대 및 간담회에 참석, 경찰력 위주의 치안정책을 탈피한 지역사회 공동안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내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피해 예방 협력을 위한 논의를 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귀포경찰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서귀포시관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9월 서귀포경찰서(서장 강명조)와 함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의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방안과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 진행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 '희망2010나눔캠페인' 출범식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11월 28일 제주시 청 어울림마당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장, 사회복지봉사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0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희망2010나눔캠페인'은 '나눔은 행복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도내 방송·신문사에 모금접수창구가 마련돼 성금을 접수하며, 도내 전 지역의 금융기관, 약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서도 모금 동참이 가능하다. 휴대폰, 전화 등으로 사랑의 전화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2000원에 참여할 수도 있다.

모금목표액은 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9% 증가한 금액이다.

박찬식 회장은 "여러분들의 1%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100% 행복이 될 수 있다"며 "사랑의 온도담이 작년처럼 100도를 넘겨 훈훈한 제주도민의 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적극적인 캠페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밸리댄스로 자신감 업(UP)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2009년 3월부터 10개월간 고은희 댄스스쿨 이봉외 강사의 지도하에 입소 여성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밸리댄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9월 7일 열린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와 12월 22일 송죽원 '송년의 자리'에서 밸리댄스를 선보였다.

송죽원은 이 프로그램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전문화된 특기생활을 발굴, 자기만족도를 높여 성취감 향상을 도왔다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 제주관광안내도' 제작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센터장 부형중)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제주관광안내도를 제작했다.

이 지도는 전국 최초로 제작된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지도로써, 도내 관광지 및 근처의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상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표기해 도내를 여행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에게 이동과 접근의 편의제공에 중점을 뒀다.

특히 레저문화에서 소외됐던 중증장애인들에게 능동적인 선택관광의 시발점으로 장애인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제주지원센터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원센터는 12월 23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2009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대회'를 통해 지도를 발표하고 배포했으며, 전국 장애인단체 및 관광관련업체, 도내·외 유관기관에 배포해 제주도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체험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문화모듬활동 '세대공감 두드림' 성황

정혜재활원 신통방통공연단

정혜재활원 신통방통공연단은 12월 12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장애인들과 함께 '세대공감 두드림'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효돈초등학교 난타동아리 '두드림'과 대정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사물놀이 '몽생이', 송산청소년문화의 집 댄스동아리 'Happy Girls', 동홍동주민자치센터 동홍두드림 'Gam Jae(감재)', 하효청소년문화의 집 댄스동아리 등이 협연팀으로 참가해 신통방통공연단과 어우러져 열정의 무대를 만들



었다.

또 예래청 소년문화의 집 'Gump'와 참요가세상 요가댄스동아리 '요가사랑'이 찬조출연했다.

신통방통공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청소년과의 문화모듬활동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서귀포시다문화가정 가족캠프 실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풍림리조트에서 서귀포시 관내 다문화가정 16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간 화합 및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서귀포시 지원 '2009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예절교육원 오창홍 부원장이 이주여성 한국문화이해교육과 부부교육(의사소통, 편지쓰기, 성격 유형 검사, 가족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교육을 수료한 다문화



가정에는 수료증을 수여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부터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일상생활교육, 건강교육, 부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36명에 난방지원사업

순복음증합사회복지관

순복음증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11월 한 달 동안 복지관 주변에 살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36명을 대상으로 가정상황에 따라 난방유와 가스히터, 온열장판 등을 지원하는 겨울철 난방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칼럼

초등복지교육에 거는 기대



김 순 효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부모들은 아이가 착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심본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넉넉히 베풀 줄 아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길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팽배한 학벌주의와 성적지상주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1등만을 강요하는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사회복지의식 향상에 '효과'

이런 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복지교육은 전인교육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복지교육은 사회복지의 개념, 장애인·노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사진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초등학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2008년 7개 초등학교에서 870여명, 2009년에는 14개 학교에서 12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더불어 사는 방법과 예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심어줬다. 실제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등 사회복지의식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의 사회통합이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생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기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자아주체성과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복지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생 복지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사는 태도를 기르며,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성을 깊이

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한다. 또 상호간에 서로 돕고 협력해 가는 긍정적 사고와 의식을 키우고 어린이들의 인격형성에 도움을 줘 입시위주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안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복지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교육가치 공감대 형성 필수

올해에도 제주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초등복지교육이 지속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들이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제공되는 것이다.

복지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교육이 갖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교구개발, 교육시간 및 대상 확대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당국 역시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새싹에게 사회복지의 소중함을 심어주며 제주에 복지교육의 씨앗을 뿌린 사회복지협의회의 거침없는 무한진주를 경인년 새해에도 기대한다.

시론

사회적연결망,사회안전망에 대해

청소년학자인 시겔(Siegel)과 웰시(Welsh)는 2005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 학교 이외의 교외활동, 단체활동, 종교활동, 지역사회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을수록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로 연결된 개인이나 조직의 연결망과 많이 연결될수록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상황이 지닌 중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역할들이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직접적 복지 연계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적은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개인과의 연계 등을 통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개인의기본적 삶과 사회 유지돼야

이는 전체 사회의 안전망이 기본적으로 구축될 때 더욱 가능하다고 하였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지 오래다. 즉,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사회복지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와 자치단체, 노사, 각종 계층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망 형성에 성공한 나라라고 한다. 스웨덴은 청소년 범죄율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10년 만에 다시 도래한 세계적 경제위기 광풍에서 한참 비켜 서 있었다는 평가다.

우리 사회에서 공의적 사회연결망 혹은 사회안전망의 구체적 설치 노력은 김대중 정부가 시작이라 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는 전체 국민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었고, 안전망에 대한 투자가 경제회생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복지투자우선론에 힘을 실어 주기도 하였다.

정권교체에 따라 연결망 방식에 대한 정책부침은 있었으나 10년 만에 재차 도래한 금융위기를 맞아 아직도 안전망의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망구축에 있어 재정부담의 이유, 혹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창조적 안전망구축의 방법으로 시장주의를 일부채택하고 있는데 -마우처제도에 사업주체로서 영리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영역까지 의료산업화라는 시장주의 논리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의 방식과 수단에 있어 투자 가능한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면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사회안전망이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일이다. 사회안전망의 기본가치는 누구든지 실패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하더라도 개인의 기본적인 삶과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석구석 사회적 연결망이 고리로서 형성될 때 건강한 사회로서 국민의 경제적 부가 탄탄하여진다.

하지만 이익이 주된 관심인 시장주의는 근본적 생태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고 해서 대안으로 연결망구축에 시장주의를 채택코자 하는 현실은 복지를 부의 축적수단으로 왜곡시킬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른바 복제재벌 탄생을 가능케 한다고 보는데 사회안전망설치에 성공한 스웨덴이 시장주의를 선택했는지, 안전망에 대한 정부 시각이 무엇인지 새삼 생각해본다.

기고

결심하면 금연은 성공



김 선 리

제주시 동부보건소

요즘처럼 추워져가는 겨울 그리고 신종플루로 아직도 긴장하고 있는 지금, 반드시 금연하여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 20여년 전의 일입니다. 절친했던 친구의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입원하셔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아버님과 친구 분들이 방문을 닫고 흡연을 하시며 종일 생활하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건강하게 보였던 분이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습니다. 간호를 하던 친구의 한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막상

입원하고 보니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1년 정도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너무나 힘들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술은 드시지 않았는데 금연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병원 생활할 당시(1985년)에는 아버지의 최고 선물이라 담배 한 보루여서 저도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사드린 품목 중 하나입니다. 무지가 아버님을 빨리 가시게 한 건 아닌지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담배의 해로움은 누구나 간접 체험을 하기에 많은 분들이 금연 상담을 오십니다. 대략 27세 이상의 흡연자들은 '언젠가는 금연을 하리라'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에 1차 방문은 하십니다. 하지만 연계하여 금연 상담을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가끔 단체훈련 중에 유서를 쓰며 스스로 반성과 후회를 하며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금연에 성공하려면 첫째는 금연 초심을 다져 줄 명분 있는 이유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한 예로 요즘 결혼 적령기의 대상자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금연을 합니다. 제 남편도 제가 담배 알려지가 있어 못물과 재채기를 하기에 금연다짐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40대 이후의 흡연자들은 몸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숨이 차거나 빨리 지치고 아침이 되면 개운하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흡연자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흡연경력이 있어 처음에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금연결심의 이유를 세가지 정도 세워 항상 자신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금연보조제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금연을 할 때는 니코틴의 중독과 습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고 상담사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아낌없는 정보제공을 공유하면 금연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의 약 40%는 금연에 성공합니다. 올해에는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옛 속담처럼 흡연습관을 옛날 이야기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 2010년 경인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을 저소득층복지, 가족·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위생으로 나눠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자금 지원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7월 시행

저소득층복지

최저생계비 2.7% 인상...저소득층 생활안정 도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보다 2.7% 인상된 136만3000원(4인 기준)으로 기준이 완화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됐다. 현금급여 최고한도액도 114만1026원(4인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3만 6000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희망

키움통장'도 도입된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3인 가구 기준 월평균 35만원)을 3년간 적립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지급받으며, 나머지 적립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가족·여성복지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강화

재가 미혼 모·부자에 대해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자녀양육 등 생활계획 상담, 직업연계, 가족기능 강화사업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치료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리검사 등을 제공, 입소자를 보호하고 향후 자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긴급구조를 지원하고, 다양화·음성화되는 신·변종 유해업소 등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또 신속한 정보 수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역명예감시단과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사례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여성폭력방



지 중앙점검단과 연계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귀포시 지역에도 설치·운영돼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에 필요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육시설 파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

저소득 치매노인에 치료관리비 지원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3467명에서 4558명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는 요

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건강안마, 재활치료, 치매 예방 등 건강개선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된다.

2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

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 1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보건·위생

의과·한의학·치과 협동진료가능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가 의무화된다. 의료기관이 의료보수표를 도 및 보건소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자녀를 갖기 어려운 부부에게 체외수정술비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인공수정술비가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아동의 충치가 없는 큰어금니 홈메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아당 7000~9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지적, 자폐성장애가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다.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수당은 유지된다.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악외과와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010 庚寅年

勤賀新年

새롭게 밝아온
庚寅年の 새아침 !

그 간 베풀어 주신 關心과 配慮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